대학원생세미나 13. 11. 13

리딩: Phillips, Andrew. 2011. War, Religion and Empire: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Ord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제: 이재현)

<토론>

전재성: 가장 기여한 부분은 종교개혁 이후 웨스트팔리아까지 질서의 collapse부분을 잘 설명. 그리고 immature-anarchy라고 부잔이 표현. 이를 이전에 pre-anarchy라고 명명 했었는데 그 파트가 가장 잘 됨. 뒤에는 중국파트 2차 문헌 위주로 참고해서 서술.

붕괴의 순간 정확히 잡기 쉽지 않음. 고전적, 반동적인 노력이 동시에 존재. 순간이 지난 후에는 것들, 수구적인 노력이 무력하다면 이미 붕괴한 것이라고 함. 이후의 국제질서, immature-anarchy. 갈등 수행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합의도 존재하지 않음. 비엔나 조약, 전투-비전투원 구분과 같은 사회화가 없는.. 홉스적인 상태라고 도 볼 수 있음.

최인호: 어떻게 이 사람이 관념변수와 뒤에 material interest가 같이 엮어서 나가는데 처음의 시작지점에서 종교개혁이 충격의 영향에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흥미로웠음. 종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는데 기존의 문법, 기존 제도를 교회가 못가져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기존의 라틴 기독교세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이 어거스틴의 두 개의 세계에 대한 철학,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종교가 권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간 단계가 없어지고 개인적으로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큰 영향. Normative complex에 결정적 역할을 미쳤고, 전체적인 정치 정당성이 무너지고. 존재론적인 안보도 무너지면서 중세 세계가 무너지는 것. Empire나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몇 가지 단계를 설명하는데 reformation이전이 있음. Crisis가 왔는데 Crisis가 완전히 collapse로 가는 것 아니고 찰스 5세가 empire를 시도 했었음. 약간 이기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찰스가 유럽의 80% 이상의 영토를 신성로마제국의 틀 안에서 관리. 이게 conventionalism이 깨지고 교회 대 군주의 대립이 발생하고 두 개의 세계가 무너짐. 이런 anarchy to society, 제도적인 bases가 사라지고 절대적인 anarchy가 되어서 저쪽을 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전의 order논리가 없음. 그 이전엔 국제규범이 없어져서 심각한 disorder가 있음. 적어도 secure/religious order가 있음.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분석함.

이재현: 물질-관념-제도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음. 물질-관념에서 balance하고자 한 시도인데 범위가 넓다 보니 모든 지점에 있어서 다 정교하게 설명되는지는 의문. 중국 세계적인 사회적 상상형이 예와 이를 중시하고, 유교적 세계관의 변화를 설명할 때, 서양 것이 넘어와서 A에서 B로의 서술로 파악함. 기존의 사회적 상상형이 무너지고, 기존 상태에서 국가들이 동등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세워졌다고 할 때, A의 부재로 진공상태 속에 B가 나타났다고 함. 변형과 수용, 그 안에서 엄청난 논쟁과 복잡한 다이나믹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 아닌지.

최인호: 종교부분이 가장 신선했음. 류 스미트의 틀을 가져오면서 국가의 moral purpose를 중세 사람의 salvation에서 찾았었는데 추격자들의 정치적 정당성에 훼손을 주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 국가의 ontological security 등도 제시. 중세세계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 다시 상기시키고 종교세계의 중요성 제시함. 니시타니 케이지도 비슷한 생각. 기독교의 신 관념이라던가, 존재론적인 신 관념, 뒤의 세 번째 표. 오늘날의 normative complex에서도 중요. 개인의 self-determination을 추구하게 해준다는 것을 제시. 만약 깨어진다면, 인지과학적, 새로운 지금 너무 먼 이야기긴 하지만. 이러한 Idea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도종윤: 서양에 대비해서 중국을 연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이 또 다른 문명이기 때문에? 이집트나 라틴 문명도 아니고. 중국을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러한가?

이재현: ANU에서 interaction하던 학자들 가운데 쇼고 스즈키도 있었음. 영국학파 이론의 관심사나 중국 관심.

최인호: 비교목적이 있었고, 근대 china 모델에서 변환. 기존의 order가 깨지는 과정도 idea shock이 오고, 사회적인 대변환도 있었으니까 그런 framework 위주로 생각해 봐야 할 듯.

중국 부분이 2차 자료를 많이 인용하긴 했지만 간과했던 부분은 material변수임. 이 쪽의 사회문화적인 차원의 연구에서는 당시 청나라의 젠트리 등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퍼졌었는지 등이 연구되고 있음.

전재성: 일종의 내재적 붕괴론임. 본인도 완전히 중요한 부분도 아니다. 내재적 붕괴론의 중요성은 확인 해봐야 함. Frame을 적용하다 보니, 유럽은 자체붕괴. 전파된 것이 아님. 유럽-중국 비교하다보니 내재적 붕괴론을 뺌. 좋은 포인트인 것 같긴 함

최인호: 정치적인 구조에 대한 분석은 세밀하진 못함. Empire의 개념도 불분명. 어쩔 땐 국가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동아시아 지역도 이야기하고 있음.

유럽은 자기 empire라고 했을 때 합스부르크를 포함한 주변국가들을 포함함.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주변에서 본 중심이야기가 없음.

최인호: 이행의 과정에서 재미있음. 중국 부분이 소략한 부분은 있지만. 태평천국도 reformation 부분을 강조.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했을 까도 생각하게 됨. 네트워크적인 사적 영역의 결사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선 기독교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함. 뭔가 지금 말로 하면 결사가 있었고, 이미 연결된 과정. Idea의 충격이 왔고, 경제적인 불황도 왔고, 내재적인 위협요소로 발전되었다고 함. 이행의 부분이 재미있었던 듯. 영국에서 들어올 때도 자세히 들어올 때 상인-선교사의 이해관계 항상 같지 않았음. 아편전쟁도 그러함. 경제적인 수단만 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인-선교사들은 나름의 이데올로기적 전파의 의도로 들어감. 그게 영국정부에게 부담을 줌. 영국정부는 인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국 버겁다라고 느끼고 있었음. 그런 actor들을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김은지: war, religion, empire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세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한 듯. 많은 framework들 중에서 그래도 저는 좀 어려웠지만 그 중국부분도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모난 부분은 없었던 듯. 어떻게든 이 틀 안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 보임. Religion이 잘 이해는 안 되었으나. 그 부분이 재미있었음. 서구의 붕괴는 주로 참고문헌은 1차 참고한 것을 보니까 내재요인이 강조되는데, 중국 붕괴에서 내부적인 요인이 크냐, 외부적인 요인이 큰가? 여기선 외부 요인 없애버림. 예시 선택에서도 단편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최인호: Hervia 표 그림 비판. 자꾸 class를 나누고 정체성 분리. 자신은 imperial formation이라고 함. 인식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비슷한 treaty가 지속된 것을 봤지만 major에서 데려감. 고정된 entity를 만드는 것에 대한 회의감. 베버적인 ideal type을 만드는 인식론 자체에 대해서 유감을 가진 듯이 이야기 함.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이야기는 Hervia는 유동적으로 봐야 한다. Collingwood의 이야기를 하면서. Major event에 의해서 바뀌는 식으로 봐야 한다고 함.

옥창준: 결국 합스부르크의 제국건설이 실패하고 주권국가로 가는 것이 서구의 이야기이고, 중국은 어떤 국가가 들어오든 중원 중심의 제국이 있었음. 아래에 조공국가들이 있는 흐름이 의미 없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하지만 필요한 부분. 중국적 질서가 국제질서인지도 모르겠고, 국제질서의 원형으로서 서구를 보여주고 있음. 규범, 권력, 제도 등을 다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시스템이 안정적, order가 잡혀있을 때 보여주는 것이 쉬움. 서구는 외부의 충격보다는 종교개혁 등, 나름의 자생적인 논리로 변화한 측면이 있는데 중국, 동아시아의 경험은 안정적인 질서가 깨질 때 규범-권력-제도의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움. 내부적인 decay의 수준, 정치혁명이 없어졌다, 경제력이 떨어졌다 등의 자생만으로도 설명 안 됨. 일본이 서구+중국 가져와 나름의 지역질서 만들고자 함. Formation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렵겠다.

최인호: framework의 부분도 있지만 서구 사람이어서 한계이기도 했었을 것임. 서구, 관념변화 과정도 설득력 있음. 그런 변화까지 마치 스키너의 글처럼 관념 변화까지 합쳐서 19세기까지 포괄해서 밖의 충격과 안의 관념 변화를 같이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임.

최은실: 모르고 했다가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하지만 오히려 받아들여질 만 하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한 질서가 “변해왔다”를 설명. 읽고 긴 역사적 기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오히려 로마 제국 이후, 중국질서 변환 이후 오히려 질서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듬. 권력, 관념변수 등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오히려 딱 들어맞지 않은 두 개의 것을 비교하다 보니 international 질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함. 우리는 항상 영향권, 권역을 이야기하는 듯하고 서양의 것은 세계관이 다 같이 가는 동학으로 가는 등, 그러나 동양에 와서는 혼재. 이를 정말 order라고 볼 수 있는지, 당대인들의 world에 대한 인식인지.

최인호: 나름 생각을 하고 쓴 듯 ontological security도 생각. 종교적인 메타피직스를 제시. 종교도 설명하려고 하면서 order 안에 끌어들이려고 한 듯

최인호: 중국 쪽으로 퍼져서 그런지 뒤로 갈수록 애매함.

이규원: 이런 큰 이야기를 하는 책을 볼 때 마다 회의적임. 너무 단순 도식적인 부분, classic으로 봄. 더 complexity를 보여주려는 분석틀을 시도 한 듯. 그러나 책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다양한 요소들을 상상, 규범복합체, 물질, 문화 등을 하고 있음. 첫번째 의문, 이런 이론 틀을 잘 제시하지만 얼마나 학계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줄 수 있나? 의미가 있나? 새로운 생각은 인정하지만. 이 사람이 complexity를 드러내기 위한 요소들을 제시 그러나 그 제시, 이론인가?

최인호: 그런 느낌 저도 있었음. Rise and Fall of Nations의 글은 modern state의 발전과정을 씀. 매우 비슷. 역사사회학적 발상이 상당히 들어감.

도종윤: 저는 뒷부분 보다는 앞 부분에 틀을 제시한 것이 인상적. 국제질서의 구성, 규범, 상상복합체, 물질적 맥락을 제시함. 이를 concept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정치학자이지 역사학자는 이런 것을 제대로 이야기 못함. 그리고 중국부분도 부족하지만 인상적. 하지만 현대, 질서라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들이 체제, 레짐 등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불명확. 이를 현대 유럽에 적용을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EU를 들여다 볼 때 네 가지의 구성 틀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 체제나 질서의 총체, 이런 것을 볼 때 사회적 상상체 등 하나하나 떼어서 볼 수 있다 하나의 메타포로 보면 전쟁을 바꾸면 일상의 것을 다 전쟁으로 볼 수도 있음. 종교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현재 유럽의 형성 등을 네 가지 틀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 유럽에서는 최근의 질서를 system이나 다층적 거버넌스라고 지칭. 여기서 종교를 norm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전재성: 이론 틀 관련해서 보면 여기선 거시 이행의 역사사회학적인 틀을 다룸. 유럽의 탈중세, 근대로 이행할 때의 국제정치 이행의 것은 굉장한 literary review가 있음. 오시엔더 등 많은 사람들이 있음. 그래서 굉장한 역사사회학자들이 세부적인 이론틀을 다 흡수한 다음에 써야 하는데 이론 틀이 너무 간단함. 층위들 간의 이해의 모델이 있어야 함. Mann은 4가지로 나눔. 지리상의 발견이나, 테쉬케 등의 거시이행이 빠진 상태. 관념, 폭력변수만 주로 봄. 정치변수는 빠짐. 절대주의 시기의 empire와 중세 empire가 없음. 모델이 없고 framework만 주지 그 framework가 가설의 형태로 갈지가 불명확. 마이클 만은 각각 층위, social power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거시이행을 한다고 했고, 경제가 봉건에서 자본으로, 폭력도 기사중심에서 총포의 발명으로 거시적인 육군 중심의 상비군 체제로 가야 함. 이념도 여기서 Christendom으로 넘어가고, 아우구스부르크-웨스트팔리아의 정치 모델이 없고, 여기는 conceptual만 다룸. 중동도 비슷한 이행기를 겪었었고 이슬람 중심의 이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근대 체제로 넘어갔음. 이행기에 대한 집중은 좋은 데 전후 연결성이 부족.

우리가 복합이행론을 이야기할 때 현대, 동아시아의 경우를 고려해야 함. 이행을 한 1945년 이후의 것이 있고, 여전히 이념적으로 empire의 관념이 있음. 이행기의 상정과 이행기를 상정한 뒤에 중첩적으로 현재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이행기가 길었다는 것과 다름. Phillips의 논의는 그에 비하면 단순. 동아시아에서 1945년의 위기는 단절성이 강함. 근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1945년 이후의 왜곡된 문제. 남북, 양안, 일본문제 다 이전의 논의들이 깔림. 이행기가 긴 만큼 현재의 중첩도가 높다. 유럽에서는 근대형성기가 짧았으며, 근대가 다 되면 중세의 것이 잘라지게 됨. 여기선 post-colonial로만 처리하는데 비서구가 영향을 주는 것도 봐야 함

중국파트에서도 종교개혁, Reformation에 대응하는 뭔가를 찾고 싶었던 듯. confessionalism을 상정한 것처럼 중국도 이를 이야기하다 보니 태평천국의 난-세속주의-국민당/공산당이 연결되어서 New culture로 가는 흐름을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한 것 아닌가. 태평천국의 난이 그렇게 서구화되었다고 보기 힘듬. 옷 차림이나 그런 것들은 기독교적이지 않았고 최근의 confession이랑은 다름. 동아시아의 유교질서가 서구의 Christendom하고 단순비교 될 수 있나? 동아시아의 유교질서는 상당히 세속적이었고, 서구의 종속도가 높음, 개인 아래 hierarchy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양명학을 비판하는 성리학의 입장. 유교 내에도 다양한 계파들이 있어서 이전에도 유교질서 이외의 다기화된 정통성 문제가 있었음. 동아시아 부분의 전간기 해석은 좋은 듯. 워싱턴 체제의 문제. 1920-30년대 잘 안 다뤘음. 중국의 민족주의, 일본의 Racism, 불평등 조약의 불평등성, 워싱턴 체제의 불합리성 그런 모순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전간기 묘사를 잘한 것에 비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됨.

현대 파트와 연결시켜 보면 최근 global sovereign의 설명이 있음. 자기가 생각하는 order를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함. 글로벌 거버넌스를 보면 서구를 받아들인 비서구들이 rise of pre-modern처럼 전통질서를 다 부각시키고 있음. 지금 질서의 order변화만 할 때 이슬람만 이야기하기 어려움. 지금의 21세기 중국의 Chinese challenge를 써서 하는 것이 나을 듯.

그렇지만 거시이론 틀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지의 질문도 나옴. Hervia 논의처럼 인간은 완성할 수는 없는 존재이지만 내러티브로만으로 가능한지? 국제체제, 이행을 다 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는데 까지 해봐야 함. 내가 속한 국제사회의 이행논리에 대한 개념화, 언어화는 할 필요는 있을 듯. 완전한 무지와 완전한 지식 사이의 논의 필요. 역사학자들은 뭐라 할 테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의미가 있음. 역사사회학 글을 좀 더 읽고 책에서처럼 나온 것들을 동아시아 적용 노력의 것을 결국 하면 의미가 있었음. Immature anarchy, sinarchy(페어뱅크) 청과 barbarism 등 일종의 전파 시기의 거버넌스의 개념화, 이행논리의 개념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음.

웨스트팔리아 이후 주권의 본격적 시대라고 보았는데 신성로마제국 무너진 시점, 완전한 근대는 1806년쯤이나 되어야 함. 모든 국가가 주권국가의 equality가 되는 것은 1806년임. Complete society로 가는 것은 훨씬 멀었음. Empire도 다양했고, 순수한 pre-empire도 있었음. 무엇이 주(main) 조직원리로 자리 잡고, 부가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임. 여기서는 그 부분의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함. 다 완전한 sovereignty는 없음. 두 개는 분단국가. 동아시아도 과연 normal sovereign 관계는 없음. 좀 더 긴 이론 틀에서 볼 필요는 있음.